



“입금완료”에 긴머리 자르고 “민수르” 변신”

〈최민수+만수르〉

MBC ‘죽어야 사는 남자’ 중등 백작 役 최민수 ‘B+급 정서’로 수요일 코믹 책임져...오늘 첫 방

“나는 사이드 파드 알리 백작입니다. 아직 한국말을 배운지가 얼마 안 돼서요. 크흠.”

오는 19일 첫 방송 하는 MBC TV 새 수목극 ‘죽어야 사는 남자’에서 주인공 ‘한국판 만수르’, 사이드 파드 알리 백작을 연기하는 배우 최민수(55)는 17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시작부터 코믹함을 잔뜩 발산했다.

남다른 콘셉트의 베이시체 슈트를 입고 나타난 그는 등장부터 극 중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말하며 팔굽혀펴기 등 흥이 넘치는 포즈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그는 “이번 작품은 꼭 크루즈 여행을 하는 기본이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이라면서도 “최고급 자동차만 나오지만 오디오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고 더워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간단한 코믹 연기를 수락한 계기에 대해 고등선 PD를 언급하며 “전적으로 연출자에 대한 신뢰”라고 답했다.

“그동안 MBC 작품을 몇 개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된 PD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PD가 그중 한 명입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노련한 테크닉과 화면 장악력이 돋보이는 연출자죠.”

최민수는 답변 후 즉시 일어나 고 PD와 친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그가 맡은 역할은 확실히 기존 드라마에서는 잘 볼 수 없던 캐릭터다. 전대미문의 캐릭터를 맡고 나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했느냐는 질문에 “사업 노하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결국 일장연설을 했다.

“이 작품 힘들죠.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니까요. 우리 드라마를 말

할 때 ‘B급 정서’라는 얘기도 하는데, 약간 B+ 정도로 갑니다. 수산시장 가면 새벽에 월남까지 입고 일하잖아요. 그걸 압구정에 입고 가면 촌스럽다 하겠지만 수산시장에는 어울리거든요. 그게 생명력이지요. 알리 백작도 19살 때 중등으로 가서 두 손으로 자기 꿈을 일군 자예요. 촌스럽고 구대의연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력이 있죠. 근데, 나도 사실 캐릭터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웃음)”

최민수는 또 이날 제작발표회의 MC를 자처하며 고 PD에게 “PD들이 작품을 할 때 가장 데리고 하기 힘든 사람이 어린이, 동물, 그리고 최민수 아니냐”며 “괜찮았냐”고 물었다.

고 PD가 “솔직히 최민수 씨와 작품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했지만 저는 든든한 배우를 만났다. 철저히 준비해온다”고 답하자, 최민수는 깔깔 웃었다.

극 중 사위가 될 신성록에 대해서는 “역할 상 백작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여유가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 캐릭터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인정한다. 다만 나보다 키가 큰 건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작품을 위해 6년 만에 길렀던 머리를 자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음악을 하니까 기르는데 작품을 시작하면 캐릭터에 맞게 변신을 한다”며 “‘입금’ 때문에 머리를 자른 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본인이 딱히 밝히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알리 백작의 본명은 장달구. 1970년대 후반 중등으로 건너가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끈기로 석유 보유 안티아 공화국의 백작이 된 인물이다.

역만장자, CEO, 독신남, 플레이보이 등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조차 범상치 않다. 행동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과장된 쇼맨십이 동반되는데, 최민수가 이 개그 코드를 어떻게 살릴지 주목된다.

이 이야기는 상위 1%로 살던 알리 백작이 딸 지영을 찾아내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한 줌 모래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해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면서 시작된다. 24부작으로 19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타임슬립·SF NO...비교불가 新장르 도전”

SBS ‘다시 만난 세계’ 여진구·이연희·안재현 등

하루아침에 12년의 세월을 건너 뛴 열아홉 소년의 이야기가 찾아온다. 남들은 다 12년의 시간을 통과했는데, 주인공만 ‘예외’가 됐으니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수상한 파트너’에 이어 SBS TV가 오는 19일 내놓는 새 수목극 ‘다시 만난 세계’는 주인공으로서는 31세지만, 몸과 마음은 19세인 소년 ‘성해성’의 판타지 로맨스를 그린다.

지난달 27일 tvN ‘씨클’을 끝낸 여진구(20)가 숨 돌릴 틈도 없이 SBS TV ‘다시 만난 세계’에 투입돼 ‘성해성’을 연기한다. 드라마는 여러모로 KBS 2TV 금토극 ‘최고의 한방’과 겹친다. 과거의 인기 가수가 그 모습 그대로 24년을 건너뛰어 현재로 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최고의 한방’과 ‘다시 만난 세계’는 출발 지점이 똑같다.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는 주인공이 윤시윤에서 여진구로 바뀔 뿐, 큰 틀에서는 같은 열개라 후발주자인 ‘다시 만난 세계’가 이러한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주목된다.

연출을 맡은 배수찬 PD는 18일 “주인공이 1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고 해서 절대로 타임슬립이 아니다. SF도 아니다. 어떻게 돌아왔느냐를 지켜보는 것이 재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는 상상에서 기획했다”며 “어느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죽은 사람과 다시 단 1분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채워진 드라마다”라고 설명했다.

‘성해성’은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않은 19세의 순수 소년이고, 12년이 흐른 현재도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그가 좋아했던 동갑내기 소녀 ‘정정원’은 각박한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고 사회에 순응해버린 31세 어른이 됐다. ‘정정원’만 자란 게 아니다. 성해성의 동생들도 이제는 다 성해성보다 ‘어른’이 돼버렸다.

제작진은 “성해성의 ‘다시 만난 세계’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눈부시고 순수한 소년의 모험담”이라고 말했다.

여진구는 “이렇게 밝은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다”며 “중요한 점은 미소라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밝은 캐릭터를 하게 돼 좋다”고 밝혔다.

여진구보다 9살 많은 이연희(29)가 ‘정정원’을 연기한다. 자기 때문에 친구 해성이 죽었다는 죄책감이 시달리는 정원은 소녀 시절의 해명았던 모습을 잃고 생활 전선에 내몰린 레스토랑 5년차 주방보조다.

이연희는 “사실 (나이차 때문에) 제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친구 씨가 성숙하고 의젓한 면이 강해서 의지도 많이 됐다”며 “친구 씨를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점도 많다”고 말했다.

해성과 정원 사이에서 애정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레스토랑 사장 ‘차민준’은 안재현(30)이 맡았으며, 정재연과 이시연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스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람, 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UHD 한국의 유산 (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트 (재)	50 빛날 스페셜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7일의 왕비(재)	00 MBC 정오뉴스 20 군주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제27회 KBS 국악대경연 대상 선정 연주회		30 MBC 스페셜 진관사, 절발 한 그릇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25 꾸러기 식스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2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팔도발상 (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버머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콜러코스타보이 노리 15 스토에이지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수상한 파트너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별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채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남자친 여사친
12	30 특선 UHD 다큐멘터리 (번바당 거른명)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태평양 섬문화 기행 - 화산이 만든 보물섬 까미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꼬마버스 타요(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댕동댕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파닥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거꾸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개문의 쌀국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독립적 주제)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파닥(재) 16:45 댕동댕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가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어벤저스: 올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이 보다 좋은 수? 없다 태국 - 이상한 마을로의 초대> 21:30 한국기행 <인생은 로드무비 - 섬송사 대모험> 21:50 EBS 창사특별기획-최종면접 (나는 호텔리어가 되고싶다) 22:45 극한직업 <내 몸을 살리는 황토>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포기할 아이는 한 명도 없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9일(음 윤5월 26일 丁未)

子	48년생 한정된 조건하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느라 고민하리라. 60년생 만가운 이로부터 듣는 말이 있을 것이다. 72년생 투철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신으로 임해야 한다. 84년생 힘들더라도 시종일관하여야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5, 34	午	42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54년생 애꿎었던 바가 실 제로 발생하겠다. 66년생 색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다. 78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90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공허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10
丑	49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요구된다. 61년생 당혹한 입장에서 서게 될 수도 있다. 73년생 처리만 잘한다면 길사와 연결되리라. 85년생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61, 88	未	43년생 장애의 고통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 55년생 차이를 인한 변화가 클 것이다. 67년생 상대를 설득시켜야만 할 형편이다. 79년생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다. 91년생 정신 바짝 차리라. 행운의 숫자 : 85, 97
寅	50년생 힘든 만큼 비례한 효과가 확실해 나타날 것이다. 62년생 생점으로 의미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 74년생 집요하게 파헤쳐야 드러나겠다. 86년생 억지로 행하려고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4, 48	申	44년생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56년생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심하라. 68년생 지혜를 짜내어 요령껏 풀어 나가야만 한다. 80년생 순조로운 운을 더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9, 71
卯	51년생 되돌아 갈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 63년생 반박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75년생 절실한 목이 마를 때 해갈 시킬 수 있는 물을 정성껏 준다 주는 이가 보인다. 87년생 절치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2, 92	酉	45년생 실효적인 조치들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57년생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69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생산적인 모양새를 도모하는데 일조하리라. 81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되었다. 행운의 숫자 : 82, 23
辰	52년생 기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기에 충분한 변수를 보일 수 있는 시기에 돌입했다. 64년생 앞당겨질 수도 있다. 76년생 호적소와의 만남이 불가피하다. 88년생 고차원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행운의 숫자 : 22, 47	戌	46년생 기본적인 관계를 원만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58년생 행편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라. 70년생 용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지혜가 요구된다. 82년생 가히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9, 12
巳	53년생 출신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65년생 지금,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만 성사될 것이다. 77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89년생 유명무실한 것에는 미련을 둘 만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7, 11	亥	47년생 상당한 수익이 주어지면서 풍요로움을 더 할 것이니라. 59년생 시기의 선택을 잘 해야만 행복을 유지한다. 71년생 기본 질서와 체계를 순응함이 유리하다. 83년생 여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1, 8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